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Vol.32 No.3 Serial No.129 2014.6. 85~97
ISSN(print) 1229-1331
http://dx.doi.org/10.7466/JKHMA.2014.32.3.85

인성개념에 대한 부모의 인식과 가정 내 인성교육에 관한 연구

Parents' Perceptions on Character and Character Education in Family

진미정(Meejung Chin)[1], 이현아(Hyun Ah Lee)[2], 서현석(HyunSeok Seo)[2*]
[1]Department of Child Development & Family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2]Research Institute of Human Ec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attempted to explore parents'perceptions on character and character education for their children using a focus group interview method. According to previous research, the concept of character consists of wholeness of three components: relationship, individuality, and morality. This study investigated how parents' perception differ from the widely agreed concept of character. Forty-four mothers and ten fathers participated in eleven focus group interviews. The results showed that parents recognized social relationship and self realization as two most important components of character education of children. However, the parents paid less attention on morality and wholeness. The parents conceptualized character as an alternative to academic achievement. For example, they considered self realization as an alternative to academic achievement. These tendencies could be a barrier in character education in family.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recommends that parent education should take more attention on character education in family and help parents develop a balanced understanding on the concept of character.

▲주제어(Key Words) : 인성(character), 인성교육(character education), 부모의 인식(parents' perceptions), 포커스 그룹 면담(focus group interview)

Ⅰ. 서 론

루소의 주장대로 교육의 본질이 자연적 본성을 거스르지 않으면서 사회의 문화적 관념을 내면화하여 자연스러우면서도 반듯한 사람을 양성하는 것, 즉 인성을 갖춘 사람을 양성하는 것이라면 모든 교육의 목표는 인성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인성교육은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미취학시기 혹은 초등학교시기에 이루어져야 하는 좁은 의미의 생활습관교육이나 도덕교육으로 간주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좁은 의미의 인성교육마저 자녀들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학업 성취나 입시준비라는 목표에 밀려 부차적인 것으로 여겨진다. 최근 심각해지고 있는 학교폭력이나 집단 따돌림 같은 외현적 행동 문제는 청소년들이 '자연스러우면서도 반듯한 사람'으로 양성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징표로서 가정과 학교에서 루소가 강조한 본질적 교육이 이루

• 이 논문은 2013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3S1A5B8A02068055).
* Corresponding Author : Hyun-Seok Seo, Research Institute of Human Ec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Daehak-dong, Gwanak-gu, Seoul 151-742, Korea, Tel: +82-2-880-2630, E-mail: seohs35@snu.ac.kr

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근대교육제도가 시작된 이래 교육은 곧 학교교육으로 환원되어 이해되지만, 사실 교육의 원초적 형태는 가정에서 시작된다. 가정교육이 교육의 원초적 형태라는 것은 루소, 페스탈로찌, 듀이와 같이 근대교육론의 기초를 닦은 학자들이 동의하는 바이다(Boyd, 2008; J. Park, 2012에서 재인용). 루소는 가정에서 어머니와 아버지가 서로 상보적으로 아동이 가진 자연적 본성을 존중하면서 동시에 사회의 문화적 관념을 전수하는 보모와 교사의 역할을 하는 것이 가정교육이라고 하였으며, 바로 이러한 측면에서 가정교육을 가장 원초적 형태의 교육이라고 보았다(J. Park, 2012).

본 연구는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교육, 즉 생활습관, 인간관계, 기본 학습 태도, 의례와 종교를 통한 교육 등이 통합적으로 인간됨의 교육, 곧 인성교육의 기초를 형성한다는 관점에서 출발한다. 다시 말해 가정에서의 모든 교육은 궁극적으로 인성교육이다. 아동・청소년의 인성발달은 일차적으로 가정에서 이루어지며, 부모들의 인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에 따라 달라진다. 부모들이 인성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인성교육의 내용, 범위, 강도가 달라지며 그 결과 아동・청소년의 인성발달 수준도 달라질 것이다.

인성이나 인성교육은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되는 용어이면서도, 성격, 인격, 전인성, 도덕성 등 다양한 의미로 해석되기 때문에 정확한 의미가 공유되지 않는 용어이기도 하다(S. Kang et al., 2008). 따라서 부모들이 가정 내에서 인성교육을 할 때 어떤 가치와 의미를 떠올리는지, 어떤 내용에 강조점을 두는지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본 연구는 부모들이 인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인성을 무엇이라고 개념화하는지 그 구성요소를 파악하고, 어떤 방식으로 인성에 대한 개념을 형성하게 되는지의 과정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아동・청소년의 인성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정 내의 인성교육의 실태를 파악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부모들의 인식을 먼저 파악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인성교육에 대한 연구는 주로 교육학 분야에서 이루어져 왔다. 선행연구들은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인성교육에 초점을 맞추어, 인성의 개념 정의, 인성교육의 정의와 방식, 인성교육과 다른 교과교육과의 관계 등에 대해 연구를 해왔다(S. Kang et al,. 2008; M. Lee et al., 2011; K. Hong, 2004). 최근에는 아동・청소년의 인성 발달을 계량화하기 위한 지수 개발 연구(Ji et al., 2013), 학교폭력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으로서의 인성교육에 대한 연구(Korea Ministry of Education, 2012) 등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비해 가족 연구 분야에서 가정 내 인성교육에 대한 연구는 별로 이루어진 바 없다. 인간발달적 관점에서 볼 때, 부모가 자녀의 인성발달에 미치는 영향력이 지대함에도 불구하고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인성교육의 장인 가정에서 부모들이 어떤 철학과 태도로 인성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편이다. 인간생태학적 관점에서 강조하듯이 부모들의 인성 개념과 가정 내 인성교육 역시 부모 개인의 특성 뿐 아니라 가족을 둘러싼 중층적인 사회 환경, 특히 교육과 관련된 사회적 문화와 규범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된다. 현재 한국사회의 부모들이 가지는 인성 개념은 한국사회의 교육 문화와 가치를 반영하게 되며, 규범을 내면화하는 과정에서 부모 자신의 경험과 주관적 해석이 작용할 것이다.

본 논문의 구체적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부모들이 생각하는 인성의 구성요소는 무엇인가?

<연구문제 2> 부모들은 인성을 어떤 방식으로 개념화하게 되는가?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연구문제에 답하면서 한국사회의 지배적인 교육담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부모들이 가정 내 인성교육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분석을 위해 먼저 인성에 대한 다양한 학자들의 개념 규정을 살펴보고, 포커스 그룹 면담을 통해 부모들의 인식을 구체적으로 조사한 후 학자들이 규정하는 인성 개념과 부모들이 인식하는 인성 개념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찾고, 이러한 차이가 갖는 의미와 시사점을 탐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모든 교육의 출발점이 되는 가정 내 인성교육이 현재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향후 인성교육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루어지기 위해 가정과 사회에서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청소년 문제와 학교문제의 대안으로 인성교육이 강조되는 현실에서 가정 내 인성교육이 추구해야 할 방향성을 모색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기대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인성(人性)과 인성교육의 정의

인성(人性)은 일상생활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용어

임에도 불구하고 쉽게 정의내리기 어렵다. 특히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는 사회에서 인간으로서 지녀야할 참다운 인성이 무엇인지를 밝혀내는 것은 쉽지 않으며, 따라서 학자마다 매우 다양한 관점으로 논의하고 있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인성(人性)을 '사람의 성품이자 각 개인이 가지는 사고와 태도 및 행동특성'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K. Hong(2004)에서는 인성과 함께 논의되는 여러 가지 용어들이 뚜렷하게 구분되기 어려움을 지적하고 '인성과 인격, 기질, 개성, 성품, 품성, 심성, 성질, 마음' 등에 관한 개념의 차이를 정리한 바 있다.

1920년대 미국 심리학계에서 시작한 인성 연구에서는 character와 personality이란 용어를 혼용하다가 최근에는 주로 personality로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character가 도덕이나 윤리적 용어라면 personality는 개성을 강조한 학문적 용어로 자리 잡았다(J. Jung, 2009).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도덕과 교육에서 인성을 논의해 왔으며, 인성교육을 인격교육(Character Education)과 동일하게 보기도 한다. 전통적으로 학교교육에서 인성교육을 담당해 왔던 도덕교과 영역에서는 인성은 태어나면서 지니고 있는 성격이나 특질의 개념이 아니라, 의도적 교육이나 학습에 의해 습득하거나 변화가 가능한 인간의 성품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았으며, 학교교육의 맥락에서 학생들에게 함양시켜 줄 수 있는 바람직한 성품을 인성교육이 추구해야 할 인성으로 정의하였다(N. Cho, 2004).

인성교육은 학업지도와 함께 학교교육의 커다란 두 개의 축을 구성한다. 최근 갈등과 경쟁이 첨예화되는 우리나라의 교육 상황에서 인성교육은 더욱 중요성을 가진다. 인성교육은 국가 간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필요하기도 하지만 한 개인의 삶이나 행복에도 깊이 관여하기에 더욱 필요하다. 교육이 추구하는 궁극적 가치는 개인과 사회의 행복을 도모하는데 있고, 정신력이나 도덕적 성숙은 행복한 삶의 토대가 된다. 바로 이 정신력과 도덕적 성숙은 인성교육의 요체이다(B. Ahn, 2005).

J. Hyun et al.(2009)의 연구에서는 미국 교육부(2008)의 연구를 인용하며, 인성과 인성교육을 정의하고 있다. 즉, 인성은 보다 긍정적이며 건전한 개인의 삶과 사회적 삶을 위한 심리적, 행동적 특성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인성교육은 '사람들이 가족, 친구, 이웃, 지역사회, 국가의 일원으로 함께 살아가고 일하는데 도움을 주는 바람직한 사고와 행동의 습관화를 위한 일련의 교육'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인성교육은 학생들로 하여금 존중, 정의, 민주 시민적 자질, 자기 자신과 타인에 대한 책임감 등의 핵심 윤리적 가치를 이해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며 행동하게 하는 학습과정이며 이를 토대로 우리사회의 기반이 되는 안전하고, 건강한 공동체를 보증하는 태도나 행동을 형성하게 하려는 것이라 보았다. 이 연구는 좀 더 구체화된 인성과 인성교육의 내용을 제시하고 있으나 학교교육의 상황에 초점을 둔 것으로 인성교육의 일차적인 학습의 장인 가정에 대한 논의는 미약하다.

최근 연구에서는 인성을 인간의 정의적 행동, 책임감, 인내심, 타인이해, 좌절극복, 불안감 극복, 행동하기 전에 생각하기 등 인성의 개념을 좀 더 포괄적,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경향을 어렵지 않게 찾아 볼 수 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2012년 출범된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회에서는 '혼자 살 수 없는 인간의 본성에 비추어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가 지니는 성질이 인성이며, 인성의 핵심은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능력'이라고 포괄적인 정의를 내리고 있으며, E. Ji et al.(2013)의 연구에서는 인성의 개념을 구체화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인성을 구성하는 구체적인 구인을 3차원으로 설정한 모형을 개발하였다. 이 인성지수 모형은 인성의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인성영역(감성, 사회성, 도덕성), 상황수준(개인, 대인관계, 사회), 교육수준(지식, 태도, 행동)의 세 가지 차원을 고려하여 개발되었다.

이처럼 연구자마다 각각 인성을 달리 개념화하는 것은 관점의 차이도 있지만,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는 사회에서 인간으로서 지녀야할 인성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밝혀내는 것이 쉬운 과업이 아니기 때문이기도 하다. S. Kang et al.(2008)에서 언급하였듯이, 인성이란 인간이 지향하고 성취해야 하는 인간다운 면모, 성질, 자질, 품성이다. 인성의 인간다운 특성과 성품이 인간 내부에 이미 갖추어져 있는가, 아니면 외부에서 형성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종교적, 철학적 사유와 관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진다. 인성에 대한 다양한 학문적 논의들은 인성이 단지 개인 내면의 문제가 아니라 상황과 맥락, 사회적 조건과의 관계 속에서 파악되어야 하는 점을 강조한다. 즉, 인성이란 인간됨에 대한 보편적 가치뿐 아니라 현재 우리사회에서 강조되는 가치와도 밀접하게 관련되며, 공동체 내에서 습관과 실천을 통해 형성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S. Kang et al.(2008)연구에서는 21세기형 인성의 구성요소를 관계성, 도덕성, 전일성(wholeness), 영성(spirituality), 생명성, 창의성, 민주시민성으로 규정하였다.

Y. Yoon(2011)에 따르면, 인성 개념에 대한 여러 학자들의 정의는 다음과 같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첫 번째, 협의의 관점에서는 인성을 도덕성, 사회성, 정서와 같은 비(非)지적이고 정의적인 요소를 의미하는 것(S. Lee, 1996)으로 보거나, 성격・기질・개성 등의 상위개념으로 본다(I. Kim, 1999). 두 번째, 광의의 관점에서 인성은 인간됨・인간다움으로 지・덕・체 또는 지・정・의 등을 모두 골고루 갖춘 전인성을 의미하

는 개념이다. 즉, 광의의 인성은 한 개인의 모든 신체적, 정신적 특성이나 경향의 총체로서 신체나 정신의 단순한 종합이 아닌 통합성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는 개인마다 고유한 것으로 그 특징은 언제나 발전하고 변화하는 유동성과 역동성에 있다(I. Kim et al., 1992).

선행연구들을 볼 때 구체적인 인성의 정의와 구성요소들은 다르지만 몇 가지 공통적 요소를 찾을 수 있다. 첫째, 인성 개념에는 한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지니고 있는 본성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둘째, 사회적 존재로서의 역할 수행에 필요한 덕목, 즉 관계성, 배려, 시민성 등이 필요하다. 셋째, 이성적 존재로서의 합리성과 도덕성을 갖추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구성요소들이 모두 균형 있게 조화를 이루는 전일성이 중요하다. 각각의 구성요소는 개별적 가치로서도 중요하지만 인성이라는 것은 이 모든 구성요소가 총체적으로 균형 있게 갖추어질 때 완성된다. 이러한 인성의 개념을 가장 잘 반영하여 M. Lee et al.(2011:17-19)은 인성을 "선천적인 것을 포함하면서도 후천적 경험에 의해 형성되고 사회적 역할도 개입된 안정된 도덕적 성향"으로 정의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인성에 대한 이러한 개념을 토대로 부모들의 인성 개념을 파악하고자 한다. 즉 부모들이 인식하는 인성이 이러한 구성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는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어떤 구성요소들이 빠져있거나 추가되어있는지, 또 그런 인성의 개념은 어떤 인식의 과정을 거쳐서 형성되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2. 한국사회의 교육 문화와 가정 내 인성교육

단순하게 말하면, 부모의 역할은 자녀를 잘 양육하는 것이다. 그런데 잘 양육한다는 것의 의미는 사회적으로 다르며, 또한 사회 변화의 속도나 다양성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한국의 부모들에게는 학부모 즉 학생의 부모로서의 역할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즉, 부모들은 자녀가 유동적이고 가변적인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의 자녀를 돌보고, 도와주고, 지원하고, 관리하는 것으로 부모역할을 상정하고 있으며, 그 핵심에 있는 것이 바로 교육이다(J. Hyun et al., 2003).

이러한 학부모로서의 부모 역할은 학업 지원 뿐 아니라 자녀의 개성 존중과 인격적인 완성을 지향하는 전인교육에 대한 지향성도 높아 자녀의 흥미, 동기를 최대한 살리는 능동적인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것으로 점점 더 확대되고 있다. 부모들은 자녀들이 무엇을 잘하고 왜 그런 공부를 하고 싶으며, 앞으로 자신이 무엇이 될 것인가에 대해 뚜렷하고 명확한 동기를 가질 수 있도록 좋은 책을 권하거나, 학교 밖의 캠프, 다양한 문화생사에 참여할 것을 권하는 등 다양한 경험을 제공한다(K. Nam, 2005). 상층으로 갈수록 우리나라 부모들은 자녀에게 공부 외에 다양한 경험을 기회하고 제공하는데, 비교적 시간적 여유가 있는 초등학교 시절에 여러 가지 악기를 가르치거나, 다양한 운동을 시키거나, 학과 공부라 할지라도 단순 암기식이 아닌 체험을 통해 자녀의 소질 특기, 재능을 파악하려는 노력을 한다(S. Han, 2003).

한국사회는 교육이 지위분배와 신분상승을 위한 사회적 경쟁의 중요한 수단으로 작용하는 '학력 신분사회'이다(Y. Kim, 1986). 자녀가 고등학교에 진학하면 부모들은 한층 더 현실적인 관점에서 자녀의 교육을 생각한다. 예를 들면, 자녀가 앞으로 어떤 진로를 선택할 것인가, 자녀가 어떤 일을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적어도 부모세대 보다 더 높은 지위를 얻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그 정도 수준에서 살려면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할까 등 다각적인 방향에서 자녀의 직업지위를 결정해 줄 대학을 선택하는데 관심을 갖는다. 일반적으로 자녀의 학업 성적은 계열이나 대학의 학과를 결정하는 중요한 단서이기는 하지만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한 직업을 골라주는 것이 적어도 부모로서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D. Lee et al., 2007). 이러한 생각은 한국의 부모들에게 학부모 즉 학생의 부모로서의 역할이 부모 역할의 전부인 듯한 경향을 만들어 왔다. 즉, 자녀가 보다 좋은 교육환경에서 보다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교교육뿐만 아니라 다양한 교육환경을 자녀에게 제공하는 것이 부모가 수행해야할 역할(D. Lee et al., 2007)이라고 본다.

요컨대, 한국의 부모들은 학력사회와 학벌사회의 병폐를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그러한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보다는 순응하는 모습을 보인다. 단 한 번의 경쟁으로 너무 많은 것이 달라지는 입시라는 집합적 비합리성에 대해 부모들은 개인적 합리성을 택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부모들의 순응적 태도는 거주지, 계급 그리고 자녀의 성적에 따라 부분적으로 차이를 보이기도 하였지만, 대체로 하나의 공고한 학부모 문화를 형성하고 있다(D. Lee et al., 2007).

가정 내에서의 인성교육은 이러한 교육적 현실이나 학부모 문화에 영향을 받는다. 교육과학기술부(현 교육부)에서 2012년 9월 4일 발표한 '인성교육 대국민 설문조사'에 따르면, 학생들의 인성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1순위 요소를 조사한 결과 전체의 29.4%가 '성적위주의 학교교육'을 뽑았으며, '부모님의 잘못된 교육관'(20.8%), '폭력적인 또래 문화'(19.1%), '유해 매체'(11.7%)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이 항목에서 학생・학부모 집단과는 달리, 교사 집단은 '부모님의 잘못된 교육관'을 1순위(45.6%)로 답하여 가정 내 인성교육의 문제점을 더 심각

하게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의 인성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인성지수 개발과 관련한 E. Ji et al.(2013) 연구에서도 가정 내 인성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가족 간의 정의적 요소, 즉 애정과 믿음이 높을수록 초, 중, 고등학생의 인성이 높다는 양적 조사 결과를 제시한 바 있다. 이 연구 결과에서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학생의 인성 수준과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조사된 유일한 변인은 부모님(보호자)의 성적에 대한 중요성에 관한 인식(성적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도)이었다는 점이다. 즉, 초등학생과 고등학생의 경우는 부모가 무엇보다도 자녀의 성적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도에 따라 따른 학생들의 인성 수준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 중학생의 경우는 오히려 부모님(보호자)이 성적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도에 따라 학생의 인성수준은 부적인 차이를 보였다. 다시 말하면, 중학생의 경우 부모님이 자녀의 성적을 중요시할수록 해당 학생의 인성수준은 낮게 조사되었다.

이러한 실태 조사 결과를 통하여 학생들의 인성 실태나 인성교육에 관한 교사와 학부모, 학부모와 학생 등의 주체별 인식이 다를 수 있으며, 자녀의 연령 혹은 학교 급별에 따른 실태가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대규모의 양적 조사에서는 응답자들이 인성을 동일한 의미로 해석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실제 응답자들이 인성을 어떻게 다르게 개념화하고 있는지, 왜 그렇게 개념화하는지에 대해서는 정보를 주지 못한다. 이런 측면에서 주체별 인성교육에 관한 인식과 실천 등에 관하여 좀 더 세밀하게 관찰하고 그 결과를 설명하는 다양한 질적 연구가 요청된다고 하겠다.

Ⅲ. 연구방법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포커스 그룹 면담(Focus Group Interview) 방식으로 수집된 자료에 기초한다. 포커스 그룹 면담은 질적 연구 방법의 하나로, 촉진자가 연구주제에 대한 집단토의를 이끌어내는 형태로 면담이 이루어지며 참여자들이 집단토의 중에 말하는 내용이 핵심자료가 된다. 또한 핵심집단면담은 참여자들 사이에서 유대감 형성을 통해 솔직하게 자신의 경험이나 의견을 표현할 수 있게 하고, 즉흥적인 질문이나 반응을 허용함으로써 설문 조사에서 얻어지는 자료보다 훨씬 다양한 범위의 의견들을 수렴할 수 있다(M. Kang et al., 2007).

최근 인성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각계의 연구에서 부모, 교사,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성이나 인성교육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찾아 볼 수 있지만 대부분의 연구들의 설문조사 위주의 양적연구로 이루어져서 구체적인 학부모의 인식과 가정 내 인성교육의 상황을 세밀하게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설문조사는 연구자가 선정한 항목에 연구대상자들이 응답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므로 연구 대상자들이 실제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며,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심층적인 정보는 얻기 어렵다. 즉, 연구자가 작성한 설문지에 포함됨 항목에 근접한 부모들의 일반적인 인식은 조사할 수 있으나 살아있는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부모들의 목소리가 실질적으로 반영되기는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J. Bea et al., 2011). 이러한 관점에서 이 연구에서는 가정 내 인성교육의 문제와 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제적인 학부모들의 인식을 탐구해야 한다고 보았으며,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포커스 그룹 면담을 2012년 1월부터 7월까지 약 6개월에 거쳐 실시하였다.

1. 연구 참여자

본 연구의 연구 참여자들은 서울과 경기 및 인천 지역의 학부모 54명이다. 이들의 거주 지역은 서울 강북권, 강남권, 인천시, 경기도 용인시, 분당구 등 주로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이었고, 다양한 경제적 수준이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을 안배하였다. 연구자는 전화통화를 하여 본 연구의 목적을 설명한 후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를 구하였고, 모든 연구 참여자의 동의하에 미취학자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어머니 44명과 아버지 10명 등 총 54명에 대하여 3-5명 규모의 포커스 그룹 면담을 11차례 실시하였다. 구체적인 연구대상자의 성별과 나이, 거주지, 자녀의 연령 등은 <Table 1>에 제시한 바와 같다.

2. 연구도구

이 연구에서는 포커스 그룹 면담을 계획함과 동시에 자녀 인성과 부모 역할에 관한 국내외 선행연구를 분석하고, 그 결과에 근거하여 면담 질문지를 개발하여 사용하였다. 이 연구의 질문지는 연구자가 사전에 준비한 체계적인 질문으로 응답의 방향성을 갖고 출발하기 보다는 참여자의 관점과 생각을 파악해나가는 과정으로서의 질적 연구의 특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반구조화된 질문으로 개발되었으며, 질문은 크게 부모들이 인식하는 인성의 개념과 가정 내 자녀의 인성교육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인성교육의 목표), 자녀의 인성교육을 위한 노력, 인성과 학업의 관계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Interviewees

Period	Name	Age	Address	Age of Children
1st 2012-01-20 (Females)	A-1	42	GwanAk-gu, Seoul	Male(16), Male(13)
	A-2	41	GwanAk-gu, Seoul	Female(15), Male(7)
	A-3	42	GwanAk-gu, Seoul	Male(16), Female(13)
	A-4	43	GwanAk-gu, Seoul	Female(14), Male(11)
	A-5	42	GwanAk-gu, Seoul	Male(14), Male(8)
	A-6	38	GwanAk-gu, Seoul	Male(13), Female(7)
2nd 2012-01-31 (Females)	B-1	48	Yunsu-gu, Incheon	Female(15,13)
	B-2	42	Namdong-gu, Incheon	Female(14,10)
	B-3	42	Yunsu-gu, Incheon	Female(15,13), Male(11)
	B-4	49	Yunsu-gu, Incheon	Female(17), Male (15)
3rd 2012-04-03 (Females)	C-1	38	Yongin-si, Kyungi-do	Female(13, 10, 8),Male(2)
	C-2	41	Yongin-si Kyungi-do	Female(14), Female(12)
	C-3	45	Yongin-si Kyungi-do	Male(15), Male(11)
	C-4	39	Yungtong-gu, Suwon	Male(9)
	C-5	48	Yongin-si, Kyunggi-do	Female(17), Female(14)
	C-6	41	Yongin-si, Kyunggi-do	Female(14,12,11)
4th 2012-04-20 (Females)	D-1	44	Dobong-gu, Seoul	Female(18), Male(15)
	D-2	45	Dobong-gu, Seoul	Female(20), Female(17)
	D-3	41	Dongducheon, Kyunggi	Female(19), Male(10)
	D-4	49	Dobong-gu, Seoul	Male(20, 17)
	D-5	48	Dobong-gu, Seoul	Female(19), Male(17)
	D-6	49	Nowon-gu, Seoul	Female(17), Male(15)
	D-7	43	Dobong-gu, Seoul	Male(19), Female(17)
5th 2012-04-23 (Females)	E-1	49	Yongin-si Kyungi-do	Female(21,17)
	E-2	42	Sungnam, Kyunggi-do	Female(18, 17)
	E-3	45	Yongin-si Kyungi-do	Male(18), Female(17)
	E-4	47	Nowon-gu, Seoul	Male(18), Female(14)
	E-5	46	Yongin-si Kyungi-do	Male(14), Female(13)
	E-6	45	Songpa-gu, Seoul	Male(20), Female(17)
6th 2012-05-01 (Females)	F-1	33	Gangnam-gu, Seoul	Male(4, 2)
	F-2	35	Gangnam-gu, Seoul	Female(5), Male(3)
	F-3	43	Gangnam-gu, Seoul	Male(4)
	F-4	37	Gangnam-gu, Seoul	Female(4)
	F-5	36	Seocho-gu, Seoul	Male(5, 2)
7th 2012-05-12 (Males)	G-1	33	Yongin-si Kyungi-do	Female(7, 1)
	G-2	35	Yongin-si Kyungi-do	Female(3)
	G-3	43	Yongin-si Kyungi-do	Female(10), Male(7)

continued

Period	Name	Age	Address	Age of Children
8th 2012-05-27 (Males)	H-1	46	Sungnam-si, Kyunggi-do	Male(17), Male(14)
	H-2	45	Sungnam-si, Kyunggi-do	Male(18), Female(10)
	H-3	46	Sungnam-si, Kyunggi-do	Female(19), Male(15)
	H-4	46	Songpa-gu, Seoul	Female(23,13), Male(20)
	H-5	46	Sungnam-si, Kyunggi-do	Male(14), Male(13)
9th 2012-06-12 (Females)	I-1	46	Dobong-gu, Seoul	Male(24, 22, 14)
	I-2	43	Dobong-gu, Seoul	Female(18, 16), Male(14)
	I-3	39	Dobong-gu, Seoul	Male(18), Female(13)
	I-4	48	Dobong-gu, Seoul	Female(24,17), Male(12)
	I-5	41	Dobong-gu, Seoul	Male(15,13)
	I-6	42	Dobong-gu, Seoul	Male(15, 13)
10th 2012-06-13 (Females)	J-1	38	Yongin-si Kyungi-do	Female(15,10)
	J-2	44	Yongin-si Kyungi-do	Female(20, 16), Male(10)
	J-3	41	Yongin-si Kyungi-do	Male(16,13)
	J-4	44	Yongin-si Kyungi-do	Female(20, 15), Male(10)
11th 2012-07-17 (Males)	K-1	49	Goyang-si, Kyunggi-do	Male(21), Female(18)
	K-2	45	Mapo-gu, Seoul	Female(18)

Table 2. Question Categories and example for Interview

Categories	Example Questions
Goal of character education	■ What aims does your family have for your child character education? ■ What is the most important topics to your child character education in your family?
Efforts for character education	■ How does your family do character education for your children? ■ What do you try to educate your child character in your family?
Relationship between character and academic achievement	■ What do you think about the relationship of your child's character and academic achievement?

면담의 주요 질문의 내용과 예시는 <Table 2>와 같다.

3. 연구절차

이 연구의 포커스 그룹 면담은 연구 참여자들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이루어졌다. 연구자는 각 연구 참여자들과의 전화연락 시 연구목적과 면담내용에 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의 불참률을 줄이기 위해 면담 전 날 연구 참여자들과 전화통화를 하여 시간과 장소를 알려주었고, 면담 당일 오전에 다시 한 번 휴대폰 문자서비스를 통해 이를 상기시켰다. 연구자는 면담을 위해 연구 질문지, 연구참여 동의서, 녹음기를 지참하였다. 면담은 집단 별로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라포를 형성한 후 각자의 생각을 표현하도록 독려하는 분위기 속에 진행되었고, 모든 대화 내용은 연구 참여자의 동의를 얻어 모두 녹음하였다. 또한, 일반적 수준의 대답에 그치지 않고 어머니들의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경험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각 상황에 대한 사례를 떠올려 보도록 하였다. 면담에 소요된 시간은 각 집단별로 약 2시간에서 2시간 30분 정도였으며, 이때 여러 명이 함께 이야기한 내용을 녹음하므로 전사 시 누가 어떤 내용을 말한 것인지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 각 참여자가 이야기 할 때 참여자의 이름과 핵심내용의 주요어를 노트북에 기록하였다.

녹음된 면담내용은 면담을 마친 날부터 일주일 이내에 녹음된 내용 그대로 전사하고, 녹음내용과 전사본이 일치하는 지의 여부를 확인하였다. 전사된 내용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연구자와 연구보조자 1인이 함께 확인 작업을 하였다. 이렇게 완성된 전사본을 3회 이상 반복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면담을 하거나 추후 전화 면담을 하여 자료를 정리하였다.

4. 자료 분석

자료 분석을 위하여 수집된 모든 자료들을 여러 차례 읽으며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주요한 주제별로 정리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가정 내 인성교육의 목표','가정 내 인성교육의 실천에서 겪는 어려움과 문제점', 그리고 '인성교육과 학업과의 관계'등 세 가지 큰 범주로 내용이 분류되었는데, 이 내용을 토대로 부모들이 인식하는 인성의 개념을 분석하고, 개념화 과정을 파악하였다. 각 범주별 하위 내용은 부모의 특성별로 차별화되는 내용도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부모들 간의 공통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연구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자료 수집과 분석의 전 과정에 3인의 연구자가 함께 참여하여 다섯 차례 논의과정을 거쳤다.

Ⅳ. 연구결과

1. 부모들이 인식하는 인성의 구성요소

1) 명시적 구성요소: 사회성과 자아실현

가정에서 아이를 키울 때 어떤 점에 가장 신경을 쓰는지, 인성교육에서 무엇을 강조하는지 질문한 결과, 공통적으로 수렴되는 주제가 두 가지 있었다. 첫 번째 주제는 자녀가 사회 어느 곳에 가도 원만하게 잘 어울리는 사회성을 갖추게 하는 것, 두 번째 주제는 자신이 잘하고 좋아하는 행복한 일을 찾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우선 부모들은 '사회를 품는 사람(A-2)', '사회 어느 곳에 가도 잘 어우러지는 사람(A-5)', '나중에 사회생활에서 살려면 어우러져서 살아야하는 것(C-3; C-6)', '남에게 피해주지 않고 바르게 사는 것(E-3)', '피해주지 말고 잘 어울리고, 더불어서 자기 삶을 사는 것(H-4)'을 가정 내 인성교육의 핵심적인 목표라 하였다. 또한 '자발적으로 자기 할 일을 개척하는 것(A-4; B-4)', '공부 외의 아이 잠재력을 키워주는 것(A-3; B-1)', '자유롭고 즐겁게 사는 것(E-3)',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게 하는 것(H-1)', '내가 살면서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것(I-4)', '꿈을 갖고 추구하는 것(J-3)'이 행복의 조건이며 이것을 가정 내 인성교육의 핵심으로 보고 있었다.

이러한 두 가지 주제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부모들이 생각하는 인성의 가장 핵심적인 구성요소는 사회적 존재로서 갖추어야 하는 관계성과 타고난 본성 혹은 개성이라는 점이다. 관계성(사회성)과 타고난 본성(개성)이라는 구성요소는 앞서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성의 구성요소에 포함되어 있다. 이런 측면에서 부모들이 생각하는 인성의 개념은 학자들이 규정하는 인성의 개념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런데 부모들이 타인에 대한 관계성과 사회성을 설명하는 맥락을 살펴보면 강조점이 다소 다르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사회성을 의미할 때 그 궁극적인 목표가 나와 다른 타인에 대한 이해나 수용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적응'에 있다는 점을 엿보게 된다. 즉, 친구나 타인이 가진 다양성이나 다른 점을 진정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배려나 노력을 하라고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친구들로부터 왕따를 당하지 않고, '보험 든 것 같이 든든한 친구'와 어울리는 것을 강조한다(I-2). 학교에서의 왕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자녀들은 종종 "왕따를 당할만한 아이들이 당한다"고 말을 하는데 부모들은 이를 부정하거나 부인하는 언급을 하지 않고 오히려 '너도 찌질이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A-6)'고 한다. 자녀들이 이렇게 말할 때, 그렇게 다른 특성을 가진 아이들을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 배려이며 소통이라는 점을 교육하지 않는 것이다. 오히려 부모들은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친구들과 잘 어울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이것이 부모들이 말하는 사회성이다.

부모들이 강조하는 가정 내 인성교육의 또 다른 목표는 자녀들이 잘하고 좋아하는 일을 있는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행복한 자아실현은 자기 자신만의 고유한 특질, 개성, 능력을 발견하고 이를 수용하고 발전시키는 자아와의 관계에 대한 것이다. 부모들은 자녀들이 무조건 공부를 잘하는 사람으로 자라길 바라는 대신 자신이 잘하고 좋아하는 일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또한 자녀의 타고난 본성을 지원해주는 과정에서 자기주도성을 강조한다. 자기주도성은 다른 사람의 욕구나 기대가 아니라 자신의 욕구와 꿈에 따라 결정하고, 다른 사람의 기준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기준에 따라 행동하고, 다른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닌 본인의 의지력에 의해서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자기주도성은 자기 스스로의 역량을 신뢰하고 존중하는 자기효능감과 자존감에 기초한다. 그리고 이러한 자기주도성은

궁극적으로 부모가 원하는 것 대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찾고 자기의 욕구와 개성대로 선택하며 추진하는 원동력이다.

그런데 부모들이 강조하는 자기주도성이란 조금 다른 의미를 담고 있다. 자기주도성의 목적은 자녀의 자율성과 책임감을 높이는 것인데, 실제 부모들이 기대하는 자기주도성은 부모가 원하는 것을 자녀가 알아서 스스로 해주는 것이다. 이러한 이중성에 대해, 한 아버지는 '자녀를 갑으로 키우고 싶다는 부모들이, 길을 다 정해놓고 너는 그 길이 아니라 이 길로 가야해. 부모가 갑을 쥐고 아이의 미래를 결정하였는데 그런 아이는 갑이 될 수 없다(G-3)'라고 표현하기도 하였다.

2) 모호한 구성요소: 도덕성과 전인성

인성에 대한 부모들의 인식을 파악하면서 드러난 점은 인성의 요소 중 도덕적 성향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학자들은 인성의 구성요소를 크게 사회성(관계성), 개성, 도덕성, 그리고 이 세 가지 요소를 균형 있게 발달시키는 전인성을 중요하게 보았다. 그런데 부모들은 사회성과 개성에 대해서는 여러 방식으로 이야기한 반면, 도덕성, 특히 근원적 차원의 올바름에 대한 가치판단이나 올바름을 추구하는 것을 가정 내 인성교육의 목표로 강조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물론 도덕성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옳고 그른 것에 대한 것(E-3)', '부끄러운 일인가 아닌가에 대한 것(G-2)' 등 궁극적인 가치관 형성을 가정교육의 목표로 생각하는 부모도 소수 있었다. 또한 거짓말 하지 않기, 남의 물건에 손대지 않기, 다른 사람에게 피해주지 않기, 정직하기, 얻고 싶은 것이 있으면 정당하게 노력할 것 등과 같은 도덕적인 요소에 대해 언급한 부모들도 있었다. 그런데 자녀의 발달단계에 맞게 자율적 도덕 판단 능력을 기르는 데 집중하기 보다는, 거짓말하지 않기, 남의 물건 손대지 않기와 같이 내용 중심적으로 가르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도덕성 그 자체에 가치를 두고 설명하기 보다는 도덕성의 가치를 실용화하여 설명하는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어 정직의 가치를 강조하기 보다는 '엄마에게는 절대 거짓말 하면 안 된다는 것'으로 조건화하고 있으며, 자녀들에게도 '엄마에게 거짓말을 하면 엄마가 도와주지 못하니 결국 네 손해다(I-1)'라거나 '거짓말을 하면 지금은 모르지만 어떤 손실이 올 것이다(A-3)'라는 식으로 도구적인 설명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렇게 도덕적인 측면에서의 가정 내 인성교육이 강조되지 않는 것은 부모들 자신이 도덕성과 관련하여 명확한 자녀양육 철학이나 신념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현실적인 면에서 부모들은 '맞고 들어왔을 때 같이 때리라고 해야 할 지 말아야 할지 모르겠으며(F-5)', '우리 애만 올바로 가르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닌 것(F-2)'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상적으로는 올바름에 대해 교육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 때문에 부모들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도덕이나 정의를 중요한 가치로 강조하기 어려운 것이다.

한편 부모가 확고한 도덕의 기준을 가지고 있을 때는 자녀에게 더 높은 수준의 도덕적 추론을 강조한다. 예를 들어, 아래 인용에 나온 것과 같이 여자 고등학생이 학교에서 화장을 한다든지 짧은 치마를 입는 것이 학교 규칙에는 어긋나지만, 그것 자체가 올바름의 절대적 기준은 아니며, 청소년의 문화를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과 더불어 보다 상위 개념의 도덕성('진짜 나쁜 것')을 이야기하는 부모도 있었다. 즉, 화장을 해라 마라의 차원이 아니라 학교 규칙이 필요한 이유와 학교 규칙보다 더 높은 수준의 올바름의 기준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이에 대해 자녀를 교육하는 것이다.

> *"학교에서 여러 명의 아이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만들어 놓은 룰이잖아. 그니까 그 룰을 지키는 것까지는 우리애가 좀 하는 척은 해야 되지만, 그걸(화장) 했다고 해서 얘가 나쁘다 안 나쁘다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걔네 딴에는 그게 문화야. 그냥 그거는 어른이 그냥 봐줘야 되고. 진짜 나쁜 게 뭔지를 가르쳐서 그거를 훈계하는 게. (연구자: 진짜 나쁜 건 어떤 거예요?). 진짜 나쁜 건, 내가 한 행동 때문에 남이 아파하고. 피해를 주는 거죠(E-5)"*

이처럼 몇몇 부모들은 교육에서 자녀의 도덕적 품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올바른 가치관과 도덕적 판단력 형성이라는 목표는 가정 내 인성교육에서 주변화되고 있으며, 부모 자신의 확신이 없는 상황에서 모호하고 유동적인 상태로 남아있었다.

2. 부모들의 인성 개념화 과정

1) 학업과의 관계 설정을 통한 인성의 개념화

부모들은 어떤 인식의 과정을 거쳐 인성을 개념화하고 있는가? 앞서 제시하였듯이 부모들은 인성의 가장 중요한 요소를 원만한 사회성과 자아 및 본성의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인식하고 있었다. 반면, 도덕성에 대한 강조점은 부족하고 이를 총체적으로 인식하는 전인성의 개념도 결여하고 있었다.

이러한 개념화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난 것은 인성을 학업과 관련시켜 인식한다는 점이다. 인성 혹은 인성교

육에 대해 이야기할 때 부모들 중에는 인성과 공부 혹은 성적을 대결 구도 혹은 양자택일의 문제로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누군가를 배려하면서 학교에서 일등 할 수는 없다(C-4)'는 말이나 '인성은 좋은데 성적이 안 좋은 아이'라는 표현에서 이러한 관점이 드러난다.

또한 자녀의 타고난 본성 및 개성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공부에 대한 포기가 선행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대부분 부모들이 자녀가 좋아하고 행복한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도 공부와 연결시켜 '공부를 못해도', '공부보다는'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 이는 공부 잘 하는 것이 사회적 성공을 위한 최고의 가치로 인정되는 사회적 현실을 거부하면서도 동시에 완전히 무시하지는 못하는 양가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음을 반영한다. 즉, 공부와는 상관없이 자녀들이 가진 잠재력을 인정하고 원하는 바를 추구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공부와 맞지 않는 자녀, 공부를 싫어하고 잘 못하는 자녀를 이해하기 위한 방식으로서 부모 스스로 찾는 타협점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은 부모들이 인성을 개념화하는 과정의 비자발적 속성을 보여준다.

이렇게 인성과 학업을 병행하기 어려운 어떤 것, 혹은 상호 대칭되는 협의의 관점에서 해석된다면 인성교육이 도구화되거나 주변화되는 것을 피하기 어렵다. 인성을 광의로 해석할 때 사회성, 개성, 도덕성을 포괄하는 전인적인 인간됨을 갖추는 것이 가정에서의 인성교육의 목표이며, 타고난 개성 안에는 지적인 역량을 포함한 다양한 역량이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환기할 필요가 있다. 인성을 넓은 의미에서 해석하면 가정교육의 핵심이 바로 인성교육에 있으며, 이는 학업과의 관계성에서만 파악되는 부차적인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독립적인 가치를 갖는 것임을 강조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인성과 학업과의 대립 구도를 재구조화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가정 내 인성교육이 제 자리를 찾을 수 있게 된다.

2) 인성에 대한 가치 부여 과정

한국의 부모는 학력사회에 순응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적 전략과 전술을 발휘하여 지원활동을 하며, 자신이 동원할 수 있는 경제적, 인적, 사회적 자본이 많을수록 그러한 경향성이 더욱 커진다. 이러한 경향성은 점점 더 극대화되다가 어느 순간 축소 혹은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하는 계기를 맞이하게 된다. 이 연구의 포커스 그룹 면담 결과에서 일부 부모들은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학업 중심의 교육의 한계를 체감하고 있음을 감지할 수 있다. 즉, 부모들은 자녀가 성장하면서 어느 순간 자녀가 부모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면 '자녀를 내려놓게(A-6; E-3; E-5; J-1)'되고 부모로서의 자신의 양육방식과 가정교육을 반성적으로 성찰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부모들은 공부 때문에 자녀들이 가진 장점이나 잠재력이 학교에서나 가정에서나 과소평가되어 왔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부모들은 '공부만 빼면 행복할 아이(B-3)'를 '어렸을 때부터 자존감 있게 키웠어야 했는데 잘못된 것만 지적을 하다 보니 아이가 자신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갖게 된 것(B-1)'을 알게 되는 것이다.

> *"내 욕심. 그 때부터 그런 거 버리고 내려놨어요. 지금은 내가 생각하길, 어릴 때 끼가 있었는데. 내 욕심을 조금만 버리고 내가 그 쪽으로 했으면, 지금보다 더 이만큼 가 있을 아이인데 이렇게 밖에 못 간. 이건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지금은..(D-2)"*

많은 부모들이 자녀가 어릴 때는 성적 향상 위주로 교육을 시키면서 인성교육을 등한시하다가, 자녀가 공부를 잘 못하거나 또는 공부는 잘하더라도 문제행동을 보일 경우, 인성교육에 관심을 가지는 식으로 진전되는 양상을 보인다. 그러면서 학업이나 성적보다는 인성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오히려 인성교육을 더욱 강조하는 방식으로 대처하게 된다. 그런데 성적보다는 인성이 더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부모들도 결국 인성과 성적을 함께 갈 수 없는 대결구도로 인식한다는 점에서 한계를 보인다. '대한민국 상위 1% (아이들)만 공부 잘하면 되고, 우리 아이는 인성 바르게 잡힌 아이였으면 좋겠다(A-5)' 또는 '공부도 공부지만 먼저 인성이랑 사회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가급적 나가서 아이들이랑 많이 놀라고 한다(A-3)'는 부모들의 이야기를 통해 인성과 성적은 함께 성취할 수 없는 양자택일의 영역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자녀가 고등학생이 된 부모들은 그동안의 시행착오를 통해 '엄마가 너무 고집을 부려가지고 엄마 맘대로 휘둘러서 살아왔던 것(E-3)'이 결과적으로 자녀들을 의존적으로 만들고 행복하게 만들지 못하였다는 점을 생각하게 된다. 자녀들 중에는 부모가 아무리 막아도 '어느 날 갑자기 툭 튀어 나와서, 막 밀어붙이고, 나중에 하는 말이 엄마가 아무리 그래도 나는 하고 싶은 거 하고 살 거야. 나 잘되면 엄마 안 도와줄 거야(D-2)'라고 부모의 뜻을 넘어서는 아이들도 있다. 부모의 욕심 때문에 하나의 길만을 주장하다가 결국 자녀들의 다양한 개성을 인정하게 되거나, 자녀가 행복하지 못한 모습을 보면서 그것이 최선의 교육이 아니었음을 알게 된다.

이상과 같이 부모들은 자녀들과의 학업 역량이 부모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 또는 자녀와의 심각한 갈등을 경험할 때 지금까지의 교육을 되돌아보며 인성교육에

대하여 새로운 가치를 부여한다. 이러한 과정은 후회와 심리적 고통을 동반하는 자기 성찰적 경험이라 할 수 있다. 즉, 부모들은 자신이 사회적 규범이나 기대에서 자유롭지 못했기 때문에, 자녀의 개성이나 역량과 무관한 기대를 투사한다. 그리고 사춘기가 된 자녀들이 부모의 기대를 저버리는 과정을 경험하면서 인성의 여러 구성요소, 특히 개성의 발현이라는 구성요소에 가치를 부여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 역시 비자발적으로 시작되지만, 부모들의 자기 성찰과 반성을 통해 점차 내면화되고 의식화되고 있었다.

Ⅴ. 논의와 결론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부모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정 내 인성교육의 주요 목표는 원만한 사회적응, 행복한 자아실현으로 정리할 수 있으며, 인성의 구성요소는 사회성과 본성(개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지나친 성과 중심, 일 중심, 학업성취 중심의 사회구조 속에서 가정 내 인성교육의 핵심 목표들이 본래적 의미를 벗어나 왜곡된 형태로 나타나고 있었다. 원만한 사회적 적응은 타인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아닌 왕따를 당하지 않기 위한 어울림의 수단으로 전락하였으며, 행복한 자아실현은 성적과 상관없이 개인의 고유한 특질, 개성, 능력을 실현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성적을 중심으로 상대적으로 서열화된 자아실현을 의미하였다. 학자들이 강조하였던 도덕성의 차원과 다양한 구성요소들이 균형 있게 발달하는 전인성의 개념은 부모들의 인식 속에서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았고, 이는 부모들 자신이 겪고 있는 내면적 갈등에 기인한다.

왜곡된 교육문화 속에서 한국 부모들은 현실적이고도 실용적인 가치관을 스스로 내면화하여 학업에서 우수한 자녀가 되기를 최우선으로 바라며, 온갖 노력과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미래의 우리 사회가 계속해서 학업 성적의 우수함을 추구할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변화와 요구가 있을 것인지 이에 대한 촉각을 곤두세우고 불안해한다. 또한 사회 각처에서 벌어지는 학교폭력과 청소년 비행과 범죄에 대한 기사를 대할 때마다 학업보다는 자녀의 인성과 행복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갈등에 빠지게 된다. 이러한 갈등은 집합적 비합리성에 대한 개인적 합리성의 추구라는 결과로 나타난다(D. Lee et al., 2007).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개인적 합리성의 추구가 다양한 아동・청소년 문제를 초래한다는 데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는 새로운 교육의 패러다임을 찾는 것이다. Y. Mun(2012)은 '미래의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는 초・중・고 시절의 행복은 유예하면서 공부에 전념해야 한다는 전통적 교육관'에서'즐겁고 행복하게 공부하면서도 얼마든지 행복한 미래를 이룰 수 있다'는 긍정심리학의 교육관 즉, 행복교육으로 전환해야 함을 역설한다. 그에 따르면 행복감이란 상당히 주관적인 것으로 편안함과 즐거움, 충만감과 자존감, 성취감과 의미감 등을 동반하는 감정이다. 또한 행복한 삶이란 마음의 평화와 만족감이 있는 '즐거운 삶', 좋아하는 일에 빠져 '몰입하는 삶', 대인관계에서 긍정적인 의미를 찾으려 노력하고 더 높은 가치와 관련지어 노력하는 '의미 있는 삶'이다.

행복한 삶의 개념은 앞에서 부모들이 인식했던 가정교육의 목표 중 하나인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도록 지원하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여기서 부모의 역할은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관계없이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찾아 하도록 격려하는 것이 된다. 행복한 삶의 본보기이면서 격려자로서의 부모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부모 스스로 행복한 삶에 대해 성찰하고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다양한 방법과 길에 대해 열린 마음을 가지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인생의 성공과 행복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통해 성공적인 삶, 행복한 삶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

가정 내 인성교육은 타인배려, 소통, 책임, 자기주도 등의 인성의 주요 요소들을 단순히 교육하고 훈련하는 것이 아니다. 가정 내 인성교육의 목표는 사회성, 개성, 도덕성이 균형 있게 전인적으로 발달하도록 돕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학업과 인성을 대립적인 구도로 인식하는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성공과 행복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관점을 인정하고, 부모로서 자녀에게 제시할 수 있는 성공과 행복에 대한 기준을 재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과 같이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성공과 행복에 대한 관점이 학업 성취, 좋은 대학, 좋은 일자리에만 치중되어 있다면, 사회성, 자아실현, 도덕성이라는 인성 요소는 모두 이를 성취하기 위한 도구로서만 기능하는 인성교육의 도구화 현상이 초래될 수밖에 없다.

최근 2009년 이후 교육부와 여성가족부를 비롯한 정부와 지역사회 및 민간단체의 학부모 지원 정책을 다각도로 시행하고 있다. 이는 새롭게 변화하며 날로 과중되는 부모의 역할을 효율적으로 담당하도록 돕는 것일 뿐 아니라, 학교 교육의 정상화와 가정의 교육적 기능을 도모하는 일로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하겠다. 현재 이와 관련한 사업의 일환으로 각급 일선 학교와 지역사회 여러 기관에서는 부모들을 지원하고자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으며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이 (학)부모교육이다.

부모교육은 자녀의 인성에 대하여 부모들의 균형 잡힌 시각을 형성하고 가정 내 인성교육이 새롭게 정립될 수 있도록 돕는 주요한 통로가 된다. 현재 대부분의 부모교육은 자녀의 발달단계의 특성을 이해시키거나 부모자녀관계에서 필요한 의사소통의 기술이나 전략을 전달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M. Chin et al., 2014). 이러한 교육도 물론 중요하지만 부모교육에서 가정 내 인성교육에 대한 내용이 좀 더 강조될 필요가 있다. 즉 가정 내 인성교육을 통해 아동・청소년의 인성발달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인성 개념에 대한 이해, 가정에서 필요한 도덕성 교육과 전인적 접근 등 가정 내 인성교육의 철학과 가치를 새롭게 정립하도록 도와야 한다. 우리나라의 특수한 교육문화의 맥락에서는 근본적인 가정교육의 철학과 가치의 재고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가정 내 인성교육이 도구화되기 쉬우며, 아동・청소년의 다양한 문제점의 해법은 점점 더 멀어질 것이다.

본 연구는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인성발달을 위해 가정 내 인성교육이 필수적이며, 가정 내 인성교육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부모들의 인성에 대한 균형감 있는 시각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출발하였다. 열 한 차례의 포커스 그룹 면접을 통해 부모들이 인성을 어떻게 개념화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나아가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포커스 그룹 면접은 집단 역동성에 기초하여 질적인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강점을 갖지만, 그 집단이 곧 다른 집단들을 대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시행한 면접 중 아버지들의 집단이 세 집단에 불과하여 아버지들의 의견을 많이 청취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도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가정 내 인성교육에 대한 가족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부모에 대한 연구를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결론적으로 많은 학자들이 정리하였듯이 인성이란 타고난 본성과 개성이 교육적 사회화의 과정을 거쳐 성숙되는 전인적인 성품이다. 성공과 행복에 대한 근원적 성찰을 토대로 그 다양성을 인정한다면, 사회성, 개성, 도덕성 등 구성요소들은 그 자체로서 의의가 있는 덕목이 될 뿐 아니라, 인간의 품성을 높여주는 원천이 된다. 인간의 품성을 추구하는 전인적인 성장을 도모하는 것이 성공적인 삶, 행복한 삶이며, 이러한 전인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지적 발달과 도덕적 발달이 함께 가야한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이러한 인식을 토대로 전인적 성장을 도모하는 가정 내 인성교육의 본래 자리를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REFERENCES

Ahn, B.(2005). The Characteristics of Character Education in US Schools. *Studies in Humanities*, *13*, 133-169.

Bea, J, Cho. M, & Kim. E.(2011). Parents' experiences and expectations of parent education and involvement in early schooling. *Korean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31(*3), 279-304.

Chin, M., Lee, K., Lee, H., Seo, H., & Choi, I. (2014). *The Understanding of Parent Education*. Kyomunsa.

Cho, N.(2004). Characteristics of the 7th Revision of Moral Education Curriculum and Suggestions for Its Improvement. *The Journal of Curriculum Studies, 22*(1), 1-18.

Han, S.(2003). *A study on elementary schoolchildren's extracurricular activities according to their parents' class.* The Graduate School of Ewha Womans University.

Hong. K.(2004). *Charater Education for Adolescents -Who am I?-*. Hakjisa.

Hyun, J., Lee, J., & Lee, H.(2003). *A study on the educational fever of Korean parents*.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Research Report RR2003-06.

Ji. E., Do. S., & Lee. Y.(2013). *The Development research of character quotient.* Korea Ministry of Education Dept.

Jung. J.(2009). *A general study on character education for adolescents*. Busan University of Foriegn Studies.

Kang. M., Son. J., & Kim. H.(2007). The Study on Applicability of Mixed-methodology,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41*(4), 415-437.

Kang, S., Park, E., Kim, G., Song, S., Chung, Y., Kim, Y., & Ko, M.(2008). A foundational study for the vision of education for the human nature for 21st century. *Journal of Research in Education*, *30*, 1-28.

Kim. I.(1999).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character education programs for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Sunmoon University System,* 37-64.

Kim. I., Kim. J., Kim. T., Seo. B., Hong. M.(1992). Are there any Problems in Family Education?. *Philosophy and Reality*, *13*, 178-200.

Kim. Y.(1986). *The foundations of shaping the credential society*. Saegyoyuk, 378.

Korea Ministry of Education(2012). The National Sur-

vey on Character Education.

Lee, D., Nam, G., Son, J., & Oh, K.(2007). *A study on parental culture : Focused on educational support activities for children*.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Lee. M., Jin. E., Seo. M., Kim. J., Kim. B., Park. H., Lee. J.(2011). *A study on how to activate character education through subjects education and creative extra curricular activities.* Korea Institute for Curriculum and Evaluation. Research Report RRC2011-7-1.

Lee. S.(1996). Are there any Problems in Character Education?. Seoul: Korean Moral Cultural Center.

Mun, Y.(2012). *Now we need a happiness education with parents*. Center for Family-School Partnership Policy Research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1st Forum sourcebook.

Nam, K.(2005).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lass culture of parents and the screening policy.* The Graduate School of Dong Guk University.

Park, J.(2012). *Character education and home education.* The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52th Fall Conference source book, 3-14.

Yoon, Y.(2011). *A study on the effect and agreement of recognition of the character education by teachers and parents*. The Graduate School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 접 수 일 : 2014년 03월 18일
□ 심 사 일 : 2014년 04월 03일
□ 게재확정일 : 2014년 05월 29일